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음 7월 20일) 제212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김승수 전주시장은 29일 팔복동 문화공간화 본격화를 위한 '팔복동 발전 3대사업 현장보고회'를 열었다.

## 덕진권역 뮤지엄벨리 조성 '탄력'

전주시, 팔복동 국가산단 일대 문화예술공간 탈바꿈 따라  
꿈꾸는 예술터 조성·금학천 정비 등 3대사업 보고회 열어

전주시가 나후된 전주시 팔복동 국가산업단지 일대를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는것을 시작으로 덕진권역 뮤지엄벨리 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29일 팔복예술공장에서 '팔복동 폐산업시설 재생 3대 사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덕진권역 뮤지엄벨리 조성은 전주종합경기장과 법원·검찰청 부지를 활용해 △국립미술관 유치 △전시컨벤션 건립 △청년혁신파크 조성 △미세먼지·열섬해소를 위한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김승수 전주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3대 주요 사업으로 △팔복예술공간 2단지 '꿈꾸

는 예술터' 조성 △금학천 정비 △팔복동 철길 명소화사업 등 팔복동 문화공간화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협업부서 간 의견교환 등이 이뤄졌다.

먼저, 팔복예술공장 2단지의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은, 앞서 시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문을 닫은 카세트공장인 (구)쏘렉스 부지를 예술전시·창작공간으로 조성함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이 곳 일대를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조성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설 설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모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0억원을 들여 (구)쏘렉스 폐공장 B·

C·D동을 추가 개발 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 B동은 예술교육공간으로, C동은 어린이 놀이공간 공연장, D동은 전시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금학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경우, 과거 집중호우시 주택과 공장건물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금학천 2.2km구간(팔복동 전주제이퍼에서 전주천 합류점까지)에 오는 2020년까지 국비 80억원을 포함 총 160억원을 투입, 교량재가설과 유지용수 확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금학천이 물이말라 용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전주천에서 하천유지용수를 유입시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확보했다. 이어, 팔복동 철길명소화사업과 연계한 세부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도 완료했다.

끝으로,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단지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30억원 등 60억원을 투입해 철길명소화 도로정비공사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주제이퍼에서 팔복예술공장까지 팔복동 제1산단 철길 주변 도로의 폭이 왕복 2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줄이는 대신, 노상 주차장을 개설하고 수목과 다양한 조화류 등을 심어 녹지와 운동기구 등이 설치된 산책로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팔복예술공장처럼 낙후된 팔복 공단을 문화와 예술로 재생하면 팔복동 주민들과 노동자,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팔복예술공장과 금학천, 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철길 등을 포함한 팔복산단 일대를 북부권 문화예술거점지역으로 만들어 전주천체를 문화특별시로 만들어가는 핵심 기지이자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기초과학연구단 전북 오나

박주현 의원,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제정법' 대표 발의  
'정부, 기술원·새만금 연계 농생명 등 육성해야' 강조

전국 16개 시도 과학기술역량 최하위로 하락했고,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기초과학연구단도 없는 전북을 농생명과 자동차분야 중심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북과학기술원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은 지난 28일, 전북과학기술원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전북과학기술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정동영 당대표를 포함한 천정배, 유성엽, 조배숙, 황주홍, 윤영일, 김종희, 김광수, 김경진, 이영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전북출신의 이용호 의원, 민주당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전북출신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

전북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 과학기술력

신역량' 종합순위에서 2012년 8위, 2014년 10위, 2016년 14위, 2017년 15위로 최근 지역 연구개발역량이 급속하게 떨어져서 16개 지역 중 최하위권이다.

이 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기준으로 기초과학연구 수행 등을 위한 전국 28개 기초과학연구단 중 전북에는 한 개의 연구단도 없다.

박주현 의원은 "전북 군산 현대중공업 및 GM 공장 폐쇄에 대한 대책으로서 농생명바이오, 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이 필요하다. 가장 낙후되고 일자리 재난에 처한 전북에 대해서 정부는 전북과학기술원과 새만금을 연계한 농생명바이오, 자동차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군산 조산소와 군산 GM 공장의 폐쇄과정에 산업은행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두 기업의 폐쇄로 인해 군산, 전북의 경제가 피해를 겪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한다. 전북과기원 설립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김제 지평선산단에 식품가공센터 들어서

도드람김제FMC 준공식

김제 지평선산업단지에서 종합식육가공센터인 도드람김제FMC의 준공식이 29일 김종희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 전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 박준배 김제시장, 축산물품질평가원 백종호 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 및 조합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드람은 2016년 8월 김제시와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1천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월에 대지 5만 2,445㎡, 연면적 4만2,975㎡ 규모로 본 공장을 착공했으며 1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6월 완공했다.

도드람김제FMC는 하루 3,000두

의 돼지를 도축해 부분육과 부산물로 가공 할 수 있는 단일 육가공장 중에서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식육가공센터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도드람김제FMC의 준공으로 김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품질로 생산된 도드람한돈을 많은 소비자에게 공급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드람양돈협회장 이영규 조합장은 "더욱 강화된 위생관리와 철저한 온도 관리로 '한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박노태 기자

2018 대한민국 대표축제 축! 전주매일 창간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제22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 무주 반딧불 축제

The 22nd Muju Firefly Festival

2018. 9.1 ~ 9.9 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지남공원 반딧불전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45 • 문의, 063)320-5004-17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